

소규모 장학재단 저금리에 규모 위축

불교계 장학불사 발전 현황과 과제는

불교계에 다행인 것은 IMF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불교 장학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며 늘어나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주 대상이다. 현재 불교계에 운영되고 있는 장학단체는 대략 50개 수준으로 현재 규모면에서 손꼽을 수 있는 장학사업 단체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선진장학재단, 행원문화재단 등이다.

불교계 장학사업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4년 조계종이 실시한 동국대 종비 장학학생과 해이한상 씨가 설립한 삼보장학회가 시작이다. 1970년대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부산 내원정사 등 대형사찰 중심의 장학단체들이 생겨났다.

1972년에는 금오문도회가 금오장학회를 설립해 스님들의 교학연구를 지원하는 등 승가 장학사업도 본격화했다. 이후 1990년대까지는 장학사업이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대형 장학재단이 속속 설립됐다.

재가불자 신행모임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회비로 조직한 길상화장학금이 이 해부터 운영됐다. 특히 길상화장학금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년 6500만원씩 지금까지 총 450여 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6억 여원이 전달됐다. 우수 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청호불교문화

원 청호장학금을 비롯해 탄허불교재단 보문장학금, 탄허·만화 스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조계종성선회 성찬회장학금,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이 설립한 성준장학재단 등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2년에는 정대 스님과 모친 최은수 씨의 출연자산을 기반으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설립돼 학술연구단체, 불교학 신진학자, 불교계 단체 자녀 장학금 등 매년 1억 7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산 확보 안정이 숙제

불자들 공감대 형성으로

장기적 후원회원 늘려야

90년대 이후에는 조계종 외의 종단들과 NGO단체들의 장학사업 참여도 본격화됐다. ‘우리는 선우’ 향산장학금, 대불련 총동문회의 대학생지원장학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의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포교단체들과 단위사찰의 장학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봉은사, 불광사를 비롯해 운문사, 성불사 등이 대표적인 장학사업을 펼치는 사찰들이다. 이중 하남

| 불교계 장학재단 | 연락처 |
|-------------------|---------------|
|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장학금 | (02)719-1855 |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은정장학금 | (02)515-9351 |
| 금오문도회 금오장학회 | (043)543-3615 |
| 내원정사 석암장학회 | (051)242-0691 |
| 봉은사 서산사명장학회 | (02)511-6070 |
| 불광사 불광장학회 | (02)413-6060 |
| 도선사 청담장학문화재단 | (02)993-3161 |
| 성준장학재단 | (033)462-6969 |
| 운문사 법계장학회 | (054)372-8800 |
| 성불사 벽담장학회 | (02)400-5915 |
| 신광사 선도장학회 | (055)644-0723 |
| 일념장학회 | (051)816-9500 |
| 연등장학회 | (054)383-8032 |
| 행원문화재단 | (02)586-6521 |
| 한국불교대관유사 사랑의장학금 | (02)6456-7228 |
| 원고함기롭게 길상화장학회 | (02)741-4696 |
| 청호불교문화진흥원 청호장학회 | (02)515-3021 |
| 탄허불교문화재단 보문장학회 | (02)445-8486 |
| 연꽃마을 유당장학재단 | (02)719-2735 |
| 우리는선우 향산장학회 | (02)2278-8672 |
| 불이회 불이상 | (02)2014-6616 |
|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장학회 | (02)720-1963 |
| 동국대 불자지원재단 육성장학기금 | (02)2260-3114 |
| 동국대 정각원 연등장학회 | (02)2260-3016 |
| 동국대 수불장학회 | (02)2260-3891 |
| 동국대 경주권 불교특성화장학 | |
| 조계종 표교원 어린이전법 | (054)770-2114 |
| 종심도량 장학프로그램 | (02)2011-1891 |
| 조계종 체육인물자회 체육장학금 | (02)733-7277 |
| 전태재 원각불교장학회 | (02)723-1559 |
| 화엄장학회 | (032)466-7523 |
| 신라문화장학재단 | (02)413-0795 |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2001년 3억원을 출자에 벽담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소장 학자지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장학금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올해로 22번째 행원문화사

를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상품액만 6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불이회의 불이상,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소장 학자 지원사업,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의 학술사업 공모 등이 있다.

종립학교에서도 장학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동국대는 우수학생을 선발해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재학 중인 스님들에게는 등록금 감면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금강대는 전액 장학금에 학업 장려금과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그렇다면 불교계 장학사업의 과제는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장학사업의 활발한 전개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찰과 독지가들의 원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은정빌딩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은정불교문화재단 등 대형 재단 외의 대부분의 장학재단자금이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1978년 화엄승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1992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화엄종장학회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매년 4800만원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양위찬 화엄종장학회 관장은 “종단 출연 자산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찰 후원을 따로 받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성장 동력 마련”

불교문화사업단 2국 1실 체제로... 정원도 확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를 확대 개편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최근 조직을 1국 5팀에서 2국 6팀 1실로 체제를 확대 개편했다. 정원도 기존 28명에서 3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체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국과 프로그램, 상품 관리 등을 위한 사업국으로 조직을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은 총무·기획·홍보팀으로 구성되며 사업국은 템플스테이·사찰음식·문화진흥팀으로 나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사업단 특성상 많은 비중을 가진 언론 홍보,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고 팀제 운영을 통한 전문화 프로그램과 연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을 비롯해 기존 콘텐츠를 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진흥팀과 필요한 정책들을 조산 연구하는 상설 연구실 신설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조직을 세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문화진흥팀을 나눈 것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상근, 비상근 체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이나 새로운 불교문화 정책들을 프로젝트별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종교인들, 박 당선인에 ‘쌍용차 해결’ 촉구

인수위에 제안서 전달

종교인들이 구랍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노·사·정·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구랍 28일에는 논평을 내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통합적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

종교인들은 제안서에서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상징하는 쌍용차 문제의 국민 통합적 해결을 위해 인수위가 이 문

제를 주요 국정의제로 채택하고, 대통령 취임 이전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정종 협의기구’ 구성,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종교인원탁회의는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선 이후에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는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진영 간 대결문화가 고착돼 대화가 단절된 데 따른 그림자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박 당선인이 경제단체들을 찾아 고통분담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상생과 사회통합의 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절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쌍용자동차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33대 집행부 마무리에 최선”

주요종단 2013년 시무식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불기2557년 계사년 신년 시무식을 열고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일면, 교육원장 현을,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자 스님들과 일반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자승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마무리되고, 34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한 핵심주요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 부서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조계종은 1월 2일 2013년 계사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종무행정에 들어갔다.

호계원장 일면 스님은 새해 덕담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으며, 교육원장 현을 스님은 “종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불교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혼자 10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고종과 관음종 등도 1월 2, 3일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종무행정 업무에 들어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광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2월 27일 국립공원위원회회를 열고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심의 확정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도 공원 지정구역 내 전통사찰 등과 함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변화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구역 내 전통사찰은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석불암 등이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해 7월 25일 해당 사찰 주지 스님 및 분사인 송광사 등과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고 공원지정구역 내 전통사찰을 현장답사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변화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멘토 스님들 ‘힐링’,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순위 1위 해민 스님의 ‘멈추면...’

지난해 140만부로 베스트셀러가 된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국립 도서관 이용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2012년 한 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도서 80권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종합순위 1위는 SNS 스타 해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선정됐으며,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철학·종교와 생활·과학 서적 이용 부문에서도 스님들의 저서가 강세

를 보였다. 범윤 스님의 《방향제도 괜찮아》와 《스님의 주례사》는 철학·종교 8위와 생활·과학 2위에 선정됐으며, 동경대 출신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생각 버리기 연습》도 철학·종교 부문 10위에 올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 화두가 ‘힐링’과 ‘청춘’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방문에 자료를 열람한 이용자 통계를 집계한 것이다.

신종일 기자

불기 2557(2013)년 연수교육 안내

-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연수교육이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기 2557(2013)년 연수교육 강좌는 이전의 연수교육 강좌와 차별화를 두고 경전과정, 교양과정, 사찰경영과정, 전법과정, 순례과정 등 5개 과정의 총 43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좌와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교육대상

-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 ②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③ 승남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3급, 2급, 1급 승가교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사찰 주지스님들께서는 매년 개설된 강좌 중 1개 강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기간 및 시간

- ① 일반연수과정 : 2박 3일,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 ② 사찰경영지도과정 : 4박 5일, 25시간 이상 (60점 부여)
- ③ 순례과정 : 4박 5일, 6박 7일, 10박 11일 (30점 부여)
- ④ 자원봉사과정 :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 자원봉사활동은 시간과 상관없이 1년에 30점 부여
- ⑤ 인증과정 : 12시간 이상 (30점 부여)
 -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한 인증과정에 30점 부여

■ 교육장소

- ①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접 수

- ①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신청 방법

- ①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②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스님들은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교육은 강좌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고,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교육비

-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안내책자의 교육과정 안내에 별도표시)
- ① 승남 10년 미만 스님 : 10만원 감액 (수강료 50% 지원)
- ② 승남 10년 이상 스님 : 5만원 감액 (수강료 25% 지원)
- ③ 단, 실습이 동반되는 과정과 사찰경영지도과정은 10년 미만인 스님들에게 교육비 5만원을 지원하며, 순례과정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④ 2과목 이상 수강시 드려던 중복할인 혜택은 2013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납부방법: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 우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 02)2011-1807~8, 1810 / 팩스 : 02)732-4926

불기2557(2013)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3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 과정 | 강사명 | 강사 | 일정 | 장소 |
|---------|--------------------------------|-----------|-------------------------------|---------------------|
| 경전 과정 | 경덕전통 - 해동에서 입체까지 | 지안스님 | 3월 4일 ~ 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화엄경 범성경 | 해주스님 | 3월 14일 ~ 1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아비담마 일러집미 | 각목스님 | 4월 1일 ~ 3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정토신앙의 세계 | 보광스님 | 5월 2일 ~ 4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도건의 정법안장이야기 | 보광스님 | 9월 12일 ~ 14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선문필요 - 간화결의론 | 현불스님 | 9월 23일 ~ 25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잊지마니까야의 이해 | 환산스님 | 10월 7일 ~ 9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능엄경 - 삼요품 | 해가스님 | 10월 28일 ~ 30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제이있는 계율이야기 | 지현스님 | 11월 11일 ~ 13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동요보림의 세계 - 몸과 우주, 삶과 비전 | 고미숙 | 4월 4일 ~ 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교양 과정 | 주역의 세계 | 성태운 | 4월 11일 ~ 13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우리 차 만들기 | 머연스님 | 4월 26일 ~ 28일 | 대흥사 일지암 |
| | 5개의 키워드로 읽는 현대 한국사회 | 미연오 | 4월 29일 ~ 5월 1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자연과학이야기 - 뇌과학과 마음 | 창현갑 | 5월 20일 ~ 22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도자기 만들기 | 김영길 | 5월 27일 ~ 29일 | 경기도 여주 (신록사 집결) |
| | 역사로 읽는 기독교이야기 | 백찬홍 | 6월 3일 ~ 5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동양고전에서 리더를 만나다 | 구본형 | 6월 20일 ~ 22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서양고전에서 리더를 만나다 | 황광우 | 7월 3일 ~ 5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선불교와 노장사상 | 강신주 | 9월 2일 ~ 4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티베트불교의 향기 | 임우영 | 9월 23일 ~ 25일 | 전통불교문화원 |
| 전법 과정 | 수행생활과 커피 | 강귀영 | 9월 27일 ~ 29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스트리벨링 성공육사 | 고운기 | 10월 1일 ~ 3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수행과 요가 | 정경스님 | 10월 10일 ~ 12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영화로 세상읽기 | 곽재용 | 10월 24일 ~ 2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진화론과 현대사회 | 최종덕 | 10월 29일 ~ 31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사찰경영지도과정 1차 | 교육원 | 2월 26일 ~ 3월 2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사찰경영지도과정 2차 | 교육원 | 8월 26일 ~ 30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사찰경영지도과정 3차 | 교육원 | 10월 14일 ~ 18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순례이기에 만나는 부처님의 생애 | 정창권 | 3월 22일 ~ 24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물고생할의례 | 화암스님 | 5월 6일 ~ 8일 | 전통불교문화원 |
| 순례 과정 | 동사설 | 용타스님 | 6월 3일 ~ 5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청산년 명성지도과정 | 김남선 | 6월 14일 ~ 1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국제구호사업과 불교 | 묘왕스님 | 6월 25일 ~ 27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감성을 움직이는 섹터의 기술 | 불교방송 | 6월 28일 ~ 30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비중과 소통으로 모바일 세상과 만나기 | 김병진 | 9월 6일 ~ 8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 홍신스님 | 9월 9일 ~ 11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신도성검과 교향 | 김종영 | 11월 14일 ~ 16일 | 전통불교문화원 |
| |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순례순례 | 지안스님 | 4월 12일 ~ 22일 | 인도/네팔지역부처님 8대 순지 |
| | 경주남산 불적당사 | 신라문화원 | 4월 17일 ~ 19일 10월 10일 ~ 12일 | 경주남산당 |
| | 보령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 보광스님 | 8월 28일 ~ 9월 1일 | 교사신,나라,교토,오사카 등 |
| 자원봉사 과정 | 교구부서 법인 순례순례 23곳 | 교육원 | 9월 9일 ~ 15일 | 구화신,서산,우문지,경역진,황신 등 |
| | 교육원 인증 24개 과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9월 11일 ~ 13일 | 공주,부여,안성 등 |
| 인증과정 | 자세한 내용은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